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

1

김근배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The Making of Socialist Scientists and Engineers
in North Korea

KIM Geun Bae
Department of Science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North Korea bred red experts in science and technology during the period between 1945 and 1950.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gan to form science and engineering communities from 1946 but there were very few scientists and engineers whose loyalty the regime trusted. When the purge of faculty members at Kim Il Sung University started with the special emphasis on the class origins and partisan affiliations in 1947, half of the faculty members were expelled from the schools of engineering and medicine. The regime however could not find any good and sufficient number of substitutes to fill the vacant posts. Then, experts in factory floors and hospitals became a new source of manpower to fill academic posts. Pyongyang College of Technology and Pyongyang College of Medicine, both of which were separated from Kim Il Sung University in 1948, became crowded with such “practical” experts. As a result, North Korean science and engineering communities included field-oriented specialists along with ideology-oriented ones.

Key Words: scientist and engineer, field-oriented specialist, purge, Kim IL Sung University, North Korea.

1 * 이 연구는 2000년도 과학문화연구센터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머리말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를 창출하기 위해 힘썼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과학기술자는 국가와 인민을 위한 과학기술을 수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새로운 정치노선과 세계관도 철저히 갖추어야 했기 때문이다. 기술적 전문능력과 사회주의 사상을 겸비한 과학기술자가 북한이 만들어내야 할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직후 전문능력을 갖춘 과학기술자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식민지 지배로부터 갓 벗어난 상태여서 대학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마저 매우 적었다. 심지어 이들마저도 대다수는 교육연구기관이 몰려있던 서울에 머무르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과학기술 인력 확보에 한층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새로운 과학기술자를 짧은 기간 안에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인력의 부족은 당시 북한이 겪고 있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였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과정에서 사상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이상과 전문성이라는 사회적 현실 사이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사상을 앞세울 경우 과학기술자의 확보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전문성을 옹호하다 보면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가 만들어지기 힘들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과학기술에서 사상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하고자 했을까?

이 논문은 해방직후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와 의학부, 그리고 곧이어 분리 설치된 평양공업대학과 평양의학대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자의 사상성과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열악한 현실 조건과 짧은 역사 경험으로 빚어진 양자간의 심각한 갈등을 살피면서 이 문제가 북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 결과 북한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자들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일찍부터 보였음을 주장할 것이다.

2. 사상동원운동의 전개

1946년 11월말에 개최된 제3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확대위원회에서

‘건국사상총동원운동’(建國思想總動員運動)이 제창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된 가운데 인민위원회 선거가 치러지고 토지개혁이 실시되며 주요 산업금융기관에 대한 국유화가 단행되는 등 인민정권 수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 저변에는 아직도 북한의 개혁조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동조하지 않고 심지어는 은연중에 방해까지 하는 기운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력자들은 사상동원운동을 벌여 소위 ‘이색(異色)분자’, ‘불순(不純)분자’로 불린 이들을 찾아내 몰아냄으로써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운동은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 3

인민위원회 등의 주요 기관에 재직 중인 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사상 검열이고, 다른 하나는 갖가지 동원 및 교육을 통해 인민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다. 김일성 위원장이 보고 연설에서 “일체 무책임하고 무능한 관료주의자와 이색분자들을 숙청” 해야 한다고 밝혔듯이²⁾ 지도층에 대한 검열은 그들의 사상과 함께 능력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의 핵심은 인민정권을 저해하고,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 불순분자나 이색분자를 쫓아내는 데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당시 북한의 과학기술계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 사회주의체제의 지향, 남한과의 차별성 부각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³⁾ 우선 과학기술의 후진성을 빠른 시일 안에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주의이념에 따라 계획적인 관리 하에서 인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게끔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전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과학기술자들을 보다 절실히 필요로 했는데 그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하나가 투철한 사상의식을 갖추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자들은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 사상적으로도 튼튼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만 이 때까지 북한 과학기술자들은 정치적 각성과 사상적 단련을 우선순위에 두거나 시급하다고 여기지 않았고, 대신에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로써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널리 가지고 있었다. 정치권에서조차 산업재건 및 발전에의 공헌, 신진 인력의 양성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과학기술자의 주된 임무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다.⁴⁾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상동원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과학기술에서도 정치사상의 중요성이 급속히 부상하게 되었다. 사상동원운동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계에서도 검열사업이 일제히 실시되고 정치적 색채를 띤 과학기술단체에의 참여가 독려되었다. 당시 대표적인 과학기술단체로는 북조선공업기술총연맹, 북조선건축동맹, 북조선보건연맹, 북조선농림수산연맹 등이 있었다. 일례로 공업기술총연맹은 “민주공업 실시에 적극적으로 참가” 할 것을 강조하며 “1. 진보적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완전 독립국가의 수립을 기한다. 2. 기술의 총력을 결집하여 국가 산업부흥과 공업조선 건설의 만전을 기한다. 3. 일본제국주의적 잔재 요소인 사무만능(事務萬能)의 폐해와 관료화 경향의 타파를 기한다. 4. 기술자의 정치 참여를 기한다. 5. 기술문제 해결의 원활과 기술자의 양성을 기한다”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었다.⁵⁾ 이 단체가 기술자들의 정치활동 참여와

2) 이 사상동원운동의 요지는 金日成, “建國思想動員運動提要”, □人民□ 2(1)(1947. 1), 163-170쪽에 실려 있다. 여기서 인용한 쪽수는 이 글이 실린 國史編纂委員會 編, □北韓關係史料集 XIII□ (1992)의 것이다.

3) 安含光, “技術의 社會的 意義”, □工業知識□ 2(1946. 11), 14-16쪽 등을 포함한 여러 글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4) 1946년 후반까지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사상정보보다 전문성이 중시되었음은 김일성, “현 시기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에 대하여(1946. 10)”,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5쪽; “科學技術人들에게”, □工業知識□ 2(1946. 11), 2-5쪽 등을 통해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5) 이 강령은 공업기술총연맹에서 발간하는 기관지 □工業知識□의 가장 앞쪽에 실려 있다.

사상적 변화를 중요하게 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상검열은 1947년 1월부터 몇 달 동안 추진되었다. 이 때는 북한 전역에서 사상동원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서 과학기술계에서도 사상성을 특별히 강조하며 심사가 이루어졌다. 사회주의체제를 향한 초기 단계이므로 과학기술계에서는 다소 예외적으로 전문성이 중시될 법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적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한결같이 당과 정부기구에 소속된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주된 심사기준도 대상자들의 사상경향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은 정치나 이념문제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와 과학기술의 분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종종 나타났다. 과학기술은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사상이나 이념과 거리를 둔 채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식민지시기 동안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며 과학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다음 인용한 글을 통해 1946년 당시 북한 과학기술자들이 지닌 사상적인 단면들을 비교적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과거의 기술자들이 오직 자본가의 착취 방편으로 사용 당하였으며 이러므로 기술자들은 기계적인 편협한 범위 내에 살았고 정치적으로 제고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기술자들의 세계관의 협소화를 가지어오며 기술자의 '인테리'로서의 특수성을 가지어온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술자들은 정치적인 면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관심하였으며 이것은 다시 타성적인 결과로 기회주의적인 회의적인 근성을 양성하였고 구경(究竟)에 있어서 기술자들의 노예근성을 광범하게 양성되었던 것이다. 해방이후 북조선 민주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인층보다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은 이 결과이었다.

해방이후 북조선에 민주주의 기운이 맹렬히 대두할 때 대부분의 노장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자의 정치적 무색투명을 부르짖으면서 정치에의 무관심을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자의 사회단체가 사회적인 조류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2, 3 산출되었으나 그 학문의 성질로 보아서 비교적 사회성을 많이 띤 건축부문에 있어서의 [북조선건축]동맹이 활발한 기세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 기술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을 꾸준히 하면 그만이라는 데서 오는 무관심과 과거생활에서 소시민적인 안일을 맛본 데서 오는 소극적인 면 때문에 금일에 있어서도 능동적인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은 솔직성과 정직성을 가지었기 때문에 진보적인 분자들은 극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자를 사상적으로 대별한다면 1. 소수의 극히 진보적인 분자, 2. 대부분의 전연 무관심한 분자, 3. 소수의 비진보적 분자[가 있다].⁶⁾

실제로 사회적인 장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자들 중 북조선로동당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체의 10% 이내일 정도로 소수였다.⁷⁾ 진보적인 과학기술단체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자도 많지 않았고 설령 가입해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대다수는 정당이나 과학단체에의 참여를 “기술자는 기술에만 열중하면 되고 정치는 정치가만 할 것이라는 견해”⁸⁾로 기피했다.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장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과학기술자의 한 명이었던 신건희는 자신이 쓴 글에서 과학기술 부흥책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과학기술과 정치사상의 관련성, 사상의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 金正熙, “科學技術者同盟의 任務”, □ 工業知識 □ 2(1946. 11), 21-22쪽. []는 필자가 추가로 넣은 내용이다.

7) 같은 자료, 22쪽.

8) 당시 김일성대학 공학부 교수였던 김재명, “자서전”, 평양공업대학, □리력서□ (1949)에서 인용.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⁹⁾

그런데 과학기술계에서 사상동원운동은 과학기술자들의 의식을 바꾸어 그들이 정치에 새롭게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정치사상의 강조는 이들에게 정치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 자신의 전공 외에 또 다른 전문성을 갖출 것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었다. 과학기술자들에게 인문사회과학 학습 및 관련활동은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고 이 같은 방식에 의한 사회주의적 사상성의 체득은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직접 도움이 되는 면도 찾기 어려웠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해 사상성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체득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3. 대학교원 심사와 사상성 중시

김일성종합대학(총장 김두봉)은 ‘일제 교육체제’를 청산하고 그 대안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체제’를 도입하여 근간으로 삼았다. 이는 처음부터 소련식 교육제도와 사상을 모방해서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¹⁰⁾ 이 대학은 사회주의 교육체제에 기반해서 “높은 과학과 기술로 무장되고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인민]민주주의 조국건설과 우리 민족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할 우수한 민족간부”를 육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¹¹⁾ 북한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운영의 책임도 소련에서 활동하다 온 사람들이 맡았다. 교육국 부국장과 대학 부총장이 1947년 초를 전후로 각각 남일과 박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한인으로서도 드물게 소련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교수로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인물들이었다.¹²⁾ 그런데 문제는 대학 교수진을 구성하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련 교육실정에 어두웠다는 점이다. 이들 대부분이 일제 교육체제 아래에서 교육을 받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이들 중 일부는 사상적인 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대학 교수들은

9) 申健熙, “科學技術의 復興策”, □人民□ (1947. 1), 122-125쪽에는 오직 “일부 기술자 중에는 너무나 高價로 행세하려는 이가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 우리는 이 점을 특히 주의하여 기술자로서의 自己修養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는 정도만이 언급되어 있다.

10) 김일성대학의 설립 및 운영방침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10년사□ (1956); 신효숙, “해방 후 북한 고등교육체제의 형성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北韓研究學會報□ 2(2)(1998), 197-202쪽; 김근배,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과 분화: 과학기술계 학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2(2)(2000), 193-216쪽에 잘 나타나 있다.

11) 김일성이 행한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한뎡기념 대회에서 한 연설”을 김형찬, □북한의 주체교육사상□ (한백사, 1990), 146쪽에서 재인용.

12) 임시인민위원회와 소련군정의 요청으로 소련은 1946년 10월에 36명의 소련계 한인 전문가들을 파견하였다. 남일과 박일은 그 일원으로 북한에 온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신효숙, 앞의 논문, 208-209쪽.

바뀐 교육체제와 무관하게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전문성만을 강조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학의 이념과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은 이전의 모습에서 별로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교육기관에 앞서 김일성대학의 교원 심사는 1947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심사를 받게 될 교원 명단과 함께 그들의 이력서와 조사서가 임시인민위원회 교육국으로 보내졌다.¹³⁾ 예전의 이력서가 학력과 경력에 치중되어 있었던 데 비해 새로운 이력서는 그에 덧붙여 가족사항, 출신성분, 소속정당, 추천인까지 망라해서 상세히 적도록 되어 있었다. 또한 조사서에는 소속 학부의 책임자가 각 교원의 사상경향, 개인성격 등을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기록된 사항이 때로는 그간의 인정에 이끌린 평가자의 태도로 엄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았으나 사상경향이나 개인성격까지도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었다.¹⁴⁾ 한편, 대학에서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부가 주축이 되어 재직중인 교원들에 대한 각종 정보를 모으고 자체적으로 1차 심사를 벌여 심사보고서를 마련했다. 앞의 조사서가 다분히 실제 사실을 기술하는 형태로 작성된 것에 비해 이 심사보고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적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그 평가 결과를 담고 있었다. 함흥의과대학의 예를 보면 “사상적 교양과 정치성이 부족함. 학력은 충실하며 금후 편달을 요함”과 같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⁵⁾ 최종적인 적임 여부는 곧이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는 각 교원들의 사상경향과 출신배경 등 사상성에 한층 비중을 두며 상당히 원칙적이고 철저하게 실시되었다. 함흥의과대학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함남도당 문화부장, 함남 교육부장, 중앙 교육국 간부로 짜여졌다. 의학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은 채 로동당의 핵심간부가 이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 결과 심사는 자연히 대상 교원들의 정치사상, 출신배경, 개인성격 등에 중점을 두고 매우 급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로동당 당원으로서 진보적 사상을 가졌다고 판단되더라도 출신성분이 나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정도였다. 하물며 비당원인 경우는 당연히 “비진보적”,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포함해서 “비조직적”, “비건설적”, “비협력적”이라는 등의 온갖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결국 부적격 판정을 최종적으로 받은 8명을 보면 불온한 인물이거나 그에 동조할 우려가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대지주 집안출신의 사람들로 간주된 경우였다. 사상이나 학문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전체 교원 25명 중 4명에 불과했다.¹⁶⁾

13) 교원 명단은 北朝鮮金日成大學總長, “教職員 任命에 關한 件”, 北朝人委 教育局, □ 金日成大學發令件 □ (1947)에 실려 있다.

14) 이 때문에 본인이 쓴 이력서에는 “진보적”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조사서에는 그와 상반되게 “보수적, 적극성이 없음, 사상이 철저치 못함”으로 평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15) 김일성대학의 경우 심사보고와 판정내용에 관한 상세한 자료들을 아직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함흥의과대학의 예를 통해 그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검열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정치권력이 중심이 되어 모든 기관에 대해 일관되게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기에 다른 사례를 통해 김일성대학을 살펴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심사내용에 따르면 이들 부적격자는 불온한 인사 3명, 그 동조 가능자 2명, 대지주 집안출신자 2명 등이었다. 이 중에 불온자와 그 동조대상자에는 일명 “성대파”로 불린 경성제국대학 출신 4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咸興醫科大學 教員審査委員會, “咸興醫科大學 教員審査 報告에 關한 件”,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 7

김일성대학의 심사대상 교원은 총 158명으로 이들 중 과학기술계는 공학부문(공학부와 운수공학부) 30명, 이학부문(물리수학부와 화학부) 21명, 의학부문(의학부) 38명, 농학부문(농학부) 13명을 포함해서 102명이었다. 심사결과 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심사가 보류된 일부를 제외하면 공학부문 46.4%(13명), 이학부문 19.0%(4명), 의학부문 47.2%(17명), 농학부문 61.5%(8명)로 평균적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다(<표 1> 참조).¹⁷⁾ 교원 심사에서 대상자의 절반 정도를 탈락시킨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리고 공학부는 신건희에서 보다 진보적 의식을 지닌 림극제로 학부장이 바뀌고 부학부장은 최윤석에서 철학 전공의 림두성으로 교체되었다.¹⁸⁾ 예외적으로 이학부문만이 탈락자 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그 이유는 월북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데다가 어느 분야보다 전공인력의 부족이 극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¹⁹⁾

<표 1>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와 의학부 교원 심사결과(1947. 3)

소속학부	대상자	학 력	경 력	출 신	정 당
공학부	임용자 15명	대학-10명 전문-5명	3년 이상-6명 3년 미만-9명	상층-3명 중층-7명 불명-5명	가입-14명 미가입-1명
	탈락자 13명	대학-7명 전문-6명	3년 이상-7명 3년 미만-6명	상층-4명 중층-5명 불명-4명	가입-2명 미가입-10명 불명-1명
소속학부	대상자	학 력	경 력	출 신	정 당
의학부	임용자 19명	대학-10명 (박사포함) 전문-7명 불명-2명	3년 이상-14명 3년 미만-1명 불명-4명	상층-6명 중층-8명 불명-5명	가입-9명 미가입-6명 불명-4명
	탈락자 17명	대학-4명 전문-6명 불명-7명	3년 이상-5명 3년 미만-2명 불명-10명	상층-1명 중층-3명 불명-13명	가입-1명 미가입-3명 불명-13명

출처: 北朝鮮金日成大學總長, “敎職員 任命에 關한 件”, “김일성대학 교원명부”, 北朝人委 敎育局, □ 金日成大學發令件 □ (1947)의 내용을 재정리.

비고: 학력의 전문, 출신의 중층에는 그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경력은 전공분야의 전문활동만을 포함하며, 정당가입은 노동당을 비롯한 사회주의계열만을 나타냄.

심사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탈락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임용을 받은 사람들은 공학부문과 의학부문의 경우 각각 7명, 10명 정도로 소수에

咸興醫大, □ 一九四七年度 發令內申 □ (1947).

- 17) 이밖에 다른 학부의 탈락율은 역사문학부 43.6%(17명), 경제법학부 64.7%(11명)로 학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 평균은 역시 50% 정도가 된다. 北朝鮮金日成大學總長, “敎職員 任命에 關한 件”, “김일성대학 교원명부”, 北朝人委 敎育局, 앞의 자료.
- 18) 의학부는 학부장 정두현, 부학부장 최윤석이 그대로 맡게 되었다. 최윤석이 일본유학 때나 해방후 남한에서 좌익단체나 사회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과학기술계의 대표적 인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 19) 물리학과 수학을 제외한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은 교수인력의 부족으로 전공 학부를 아예 개설조차 못하고 있거나 설치했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 중이었다.

불과했다. 탈락 인사들 중 일부는 사상이 불온하고 반동적이라는 이유로 파면되거나 교화소로 보내졌다.²⁰⁾ 상당수는 비당원으로서 무엇보다 사상성(종교, 성향,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로동당 가입자라도 대지주의 집안 자제이거나 가까운 친인척이 월남을 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남한에 거주하면서 정권에 중요하게 참여했던 경우도 문제가 되었다. 이밖에 고향이 남한이지만 예전부터 북한에 그대로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보다 자세한 검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적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미루었다.²¹⁾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들 부적격자 모두를 임용에서 탈락시킬 수만은 없는 처지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내부에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이 극히 적어 대체할 인물들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에는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과학기술자의 총수가 월북인사들이 일부 가세했는데도 불구하고 30-40명 정도—전문학교 졸업자는 그보다 많았지만—에 불과했다.²²⁾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교원들을 한꺼번에 탈락시킬 경우에 교수인력과 학생들을 포함한 대학 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곤란했다. 이 시기 과학기술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공학부와 의학부를 각각 책임 맡고 있던 신건희, 정두현은 비교적 온건한 색채를 띠고 있던 인사로서 중간에 완충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³⁾

결국 최종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구제를 받았다. <표 1>에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로동당 당원들은 사상경향이나 출신배경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대거 재임용을 받았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로동당원임에도 탈락된 사람은 공학부문이 2명이었고 의학부문은 1명뿐이었다.²⁴⁾ 이들은 각각 대지주 집안(20만평 몰수), 서울대학교 보직교수 등의 자제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와는 달리 로동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탈락을 모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먼저 남한에서 활동하다 북한의 초청을 받아 월북한 인사들은 대부분 재임용을 받았다. 인력 부족문제를 남한의 우수 과학기술자를 유치하여 해소하려 했기에 당시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히 의학부문에 해당된 사항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나 제국대학 졸업자처럼 학력이 출중한 사람들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개인 능력의 판단에서 학력이나

20) 그 예가 아주 드물었지만 교화소로 보내진 인사는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던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자였다.

21) 金日成大學, “敎員任命에 關한 內申”; 教育局, “金日成大學 部長 敎員 發令의 件”, 北朝人委 教育局, 앞의 자료. 물론 이들 자료로는 판정 결과 정도만을 알 수 있고 그 내부적인 이유는

공학부문의 경우 평양공업대학, □리력서□ (1949); 平壤工業專門學校, □直轄學校 敎職員 履歷書綴□ (1946), 의학부문은 평양의학대학, □리력서□ (1949); 平壤醫學專門學校, □平壤醫學專門學校 職員 履歷書綴□ (1946) 등에 실려 있는 당사자들의 이력서와 자서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2) 전문학교 출신자는 북한 내에 대동공전(후에 평양공전으로 개편),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주지역에 할빈공전, 남만주공전 등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으므로 그 수가 조금은 더 많은 편이었다.

23) 이들의 의식과 성향은 그들이 이후에 행한 교원들에 대한 평정과 자신들의 행적을 적은 자서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공학부장 신건희는 교원 심사가 끝난 후 학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중앙연구소, 홍남공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24) 물론 로동당 가입자이지만 탈락된 사람은 이들 외에도 좀더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의학부문은 아직 조사내용이 미흡한 편이고 그 중에는 대지주 집안 출신들이 다소 있었을 것이기에 몇 명이 더 있을 수 있다.

학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와 관련해서 심사대상 명단도 학력 수준에 근거해서 그 순서가 매겨져 있었음을 눈여겨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원들이 임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은 대개 전문성보다는 심사과정에서 강조된 사상성이 문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다. 당원인 경우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다 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비당원인 경우 그들이 가진 전문성까지도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 때의 심사는 사상성, 그 중에서도 노동당 가입여부가 판정의 실질적인 핵심 잣대로 사용되었다.

대학당국은 심사에서 떨어진 교원들이 워낙 많았으므로 이들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곧 신임 교원을 추가로 모집했다. 우선 북한 내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자나 전문학교 출신 이상의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일차적으로 취해졌다.²⁵⁾ 김일성대학 공학부문의 경우 교육기관은 물론 정부부처(특히 산업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영입대상으로 삼았다. 그만큼 공백이 생긴 교원들의 자리를 충원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의학부문은 관련 전공자들이 도처에 제법 있었기에 수급의 어려움이 덜한 편이었다.²⁶⁾ 필요 인력의 상당수를 개인의원이나 국영병원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추가 임명된 교원들은 대개 노동당 당원으로 사상성과 출신성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학력과 경력은 전문학교 출신자들이 갈수록 많아졌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크게 떨어졌다.²⁷⁾

그러나 북한 내에서 교수인력을 찾는 일은 특히 공학부문의 경우 대상자가 매우 적었던 관계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대체인력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편이라 북한 최고 대학의 위상에 걸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당국은 남한의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유치해 채용하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충원안에 따르면 공학부 5명, 의학부 1명, 물리수학부 5명, 화학부 1명, 농학부 1명 등을 남한으로부터 유치할 예정이었다.²⁸⁾ 이들은 대부분 제국대학 출신으로 해당 분야에서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아울러 남한의 시국사건, 특히 국내안 파동에 연루된 경우가 많았던 것에서 보듯이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25) 교육국, “중등이상 각급학교 재직중인 기술자교원 명부 제출의 건”; “북조선 전문출신 이상의 간부현황 조사 의뢰의 건”, 北朝人委 教育局, □ 教育局 公文 □ (1947).

26) 식민지 기간 동안 국내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보면 이공계는 불과 5명이었던 데 반해 의학계는 319명에 달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게 났다. 이 같은 사실은 金根培, “日帝時期 朝鮮人 과학기술인력의 성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221쪽; 奇昌德, □ 韓國近代醫學教育史 □ (아카데미, 1995), 362쪽을 통해 알 수 있다.

27) 교원 임용에 관한 문서들이 실려 있는 北朝人委, 앞의 자료(□ 發令件 □)에 각 개인들의 이력서와 자서전이 들어있다.

28) 이들 외에 역사문학부에서는 7명을 남한 인사들로부터 충원하려고 하였다. 北朝鮮金日成大學, “大學教員 招聘依頼의 件”, 北朝人委 教育局, 앞의 자료(□ 發令件 □). 그리고 월북 과학기술자 전반에 대한 논의는 김근배, “월북 과학기술자와 흥남공업대학의 설립”, □ 亞細亞研究 □ 40(2) (1997), 95-130쪽을 참조.

물색되었다.

한편, 탈락 교원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관련 전공분야로 재배치를 받았다. 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보다는 사상이나 경력 면에서 재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던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인력 부족에 따른 조치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대다수가 정치에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뿐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은 대학 교수직에서 탈락된 이들의 재능을 가능한 활용하고자 했고 그런 가운데 사상적 단련도 한층 더 도모하고자 했다. 사상성의 부족을 들어 대학 교원들을 대거 쫓아냄으로써 그들에게 전문성 못지않게 사상성의 필요를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공학부문의 탈락 교원들은 대부분 새로이 설립된 북조선중앙연구소로 이동했다. 이 연구소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일성대학 연구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이들도 연구생으로 신분이 바뀌었다.²⁹⁾ 이들 연구생은 전문과목 외에도 기초과목으로 로어, 역사, 철학, 정치경제를 많은 시간 배우게 되었다. 이들 인문사회과목은 새로운 이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연구생들의 사상성을 높이려 부과했던 것들로 전문과목과 같은 비중으로 편성되었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³⁰⁾ 이들은 교육 및 연구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대학교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공학부문 탈락자 13명 중 10명은 김일성대학이 확장되고 홍남공업대학이 설치되는 1947년 9월을 전후하여 대학으로 되돌아갔다. 이와는 달리 의학부문 탈락 교원들은 국영병원이나 연구소로 옮기게 된 경우가 많았다. 당시 북한에서는 개인의원의 개설을 억제하는 대신에 다수의 국영병원과 함께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어서 이들 기관에 근무할 의료 인력이 대거 필요했다. 게다가 김일성대학 연구원에는 의학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학하여 정치사상 교육도 비교적 충실히 받으며 예비 교수인력으로 성장 중에 있었다. 전체 연구생 39명 중 의학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23명을 차지할 만큼 그 인원이 많았던 것이다. 이 의학부 연구생들은 상당수가 이미 노동당에 가입했거나 적어도 진보적인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다.³¹⁾ 이 때문에 의학부문에서는 탈락된 교원들을 재교육시켜 활용하기보다는 양성중인 신진인력들 중에서 적절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수인력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의학부문은 탈락자 18명 중 4명만이 추후에 재임용을 받았다.

4. 비당원 현장경력자의 수용

29) 北朝鮮金日成大學, “研究院에 關한 認可申請의 件”, 北朝人委 教育局, 앞의 자료(□ 教育局 公文 □).

30) 연구생들은 전문과목과 기초과목을 각각 12시간씩 교육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北朝鮮金日成大學, “研究院에 關한 認可申請의 件”, 같은 자료.

31) 北朝鮮金日成大學, “아쓰빠란트 所屬 學部別 給費生 定員規程 認可申請에 關한 件”, 北朝人委 教育局, 같은 자료; □ 金大敎員履歷書: 醫學部(研究員, 助手, 其他)□ (1946). 식민지시기 때부터 의학 전공자 중에는 박사학위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일성대학은 1948년 9월 “인민경제 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고등기술자를 대중적으로 양성할 목적”으로 과학기술계 학부가 다시 확충되며 몇 개의 독립된 대학으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평양공업대학(학장 림극제), 평양의학대학(정두현), 평양농업대학(리순근)이 김일성대학을 모체로 해서 만들어졌다.³²⁾ 대학을 전문분야별로 분화해서 운영하던 소련의 대학체제를 본뜬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대학에서는 다시 많은 교수인력을 새로이 보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평양공업대학이 두드러지게 확장된 관계로 공학부문에서의 교수인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때도 북한정권이 직접 나서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인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교원의 충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고착으로 이제는 남한 과학기술자를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교수인력의 충원문제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북한 내각에서는 산업국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대규모 공장에 근무하던 20명을 교수요원으로 선정하여 공고까지 냈으나 실제로 임명된 사람들은 단지 3명에 불과했다.³³⁾ 오히려 명단에 없던 다른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차출되어 신입교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이처럼 평양공업대학 교수진은 일시에 확보되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 아주 다양한 곳으로부터 몇 명씩 충원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 무렵에는 소련에서 파견된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모색되었다. 사회주의 이념에 맞게 과학연구가 생산과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북한현실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개발할 것이 제기되었다. 특히 과학기술을 현실에 접근시키고 현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현장지향적 과학기술이 등장하며 시행되었다. 당시 소련 전문가들이 시행한 활동 중 다음에 언급한 부분은 하나의 사례로서 눈길을 끈다.

평양공업대학 교수 야금기술자 사베리에흐교수는 조선 기술공업 기술교육에 있어 그 주요한 비중을 야금학에 두고 야금기술 교육의 기초를 닦아놓았을 뿐만 아니라 공장연구실의 내용을 충실히 하여 기술전체와 연결되는 유기적 조직으로써 교실-연구실-공장과 의 일체화에 성공하였다. 이리하여 연구와 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결과 훌륭히 이론과 실천이 병합하게 되었다. 선생은 실로 조선의 야금공업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조선의 지리조건—즉 콕스탄이 나지 않는 대신 풍부한 전기와 무연탄 흑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부광(富鑛)하지는 못하나마 극소하게 “만강” “크롬” “바나즘” “닛켈” 등 소량 산출되는 반면 “탱크스텐”을 비롯한 다종의 희금속(稀金屬)을 산출하고 있는—이러한 여러 조건 아래 있는 우리 조선에서 세계적 선진적인 야금기술이 반드시 발견될 것을 깊이 믿고 조선의 야금계를 추진시키고 있다. … 선생은 평양공업대학에 교편을 잡고 계시면서 또한 야금기술자 김인식 선생[평양공업대학 교수]과 같이 우선 위에 말한 여러 가지 사업의 첫 시작으로 성진제강소에 자리를 잡고 우리 젊은 기술자들을 지도 편달하고 있다.³⁴⁾

32)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編纂, □ 北朝鮮法令集 □ (1947). 이들 대학은 나중에 그 명칭이 김책공업대학, 원산농업대학으로 각각 바뀌었다.

33) 김일성대학의 분리를 발표한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編纂, 앞의 자료에 각 대학으로 새로이 배치될 사람들의 명단도 함께 실렸다. 평양의학대학은 평양공대에 비해 내각에서 발표한 사람들의 다수가 그곳 교수로 임명되었다.

34) 이 내용은 鄭元模, “黑色金屬工業 發展에 있어서 쏘련 技師들의 봉조”, □ 대중과학 □ (1948. 12), 23-32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김일성대학에서 소련 과학기술자들의 활동은 김일성종합대학, 앞의 책, 58-63쪽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과학연구가 이론, 학문, 대학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기술, 생산, 공장과 맞물리며 추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 때문에 생산현장의 기술활동, 기술인력, 기술경력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와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실천적, 생산적 과학기술활동이 부상하며 이전까지 주된 방식인 학술적, 전문적 과학기술활동에 버금가는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생산현장에서 활동하던 과학기술자들은 새로이 주목을 받으며 공장 내에서는 물론 대학, 연구소 등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1948년에 제정된 새로운 학위 및 학직(學職)제도는 생산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과학기술자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인해주는 조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전 시기에 일본 또는 다른 제국주의국가에서 받은 학위를 전면 무효화했다. 박사나 학사 학위는 원칙적으로 “학위논문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수여되지만 “과학사업에 특히 공로가 많은 자”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학직은 “학위를 가진 자”에게 부여되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업경험이 많고 고등 과학기술을 소유한 자”도 받을 수 있었다.³⁵⁾ 이는 결과적으로 기존 학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학력 차이를 축소시키며 이전과는 달리 현장 활동과 경험을 새로이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학위수여위원회의 구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위원회에 소속된 다수의 인사들은 여러 경험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박사학위 혹은 그에 걸맞은 학력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³⁶⁾

평양공업대학에는 대학 창립이 발표된 직후인 1948년 8월부터 신입교수들이 본격적으로 충원되었다. 학력이 떨어지더라도 실무경험이 풍부하면 대학교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졌기에 전보다는 다소 넓어진 대상자들 중에서 필요 인력을 선발할 수 있었다. 물론 초기일수록 가능하면 사상성이 투철한, 특히 노동당에 가입한 사람부터 교수인력으로 충원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중 전문경력을 갖추고 있거나 장래에 발전 전망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극히 적었다. 결국 이 대학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교수인력을 선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하나는 경력이나 학력은 뒤지지만 사상성이 철저한 노동당 당원, 다른 하나는 비당원이지만 현장 경험을 풍부히 갖춘 새로운 사람들이었다.

<표 2> 김일성종합대학 공학부와 의학부 추가 교원 임용실태(1947. 5-1948. 7)

35)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學位 및 學職授與에 關한 規定”, □ 內閣公報 □ (1948).

36) 대표적인 예로 이공계는 박사학위가 없던 남일(소련 사범대학 졸업), 정준택(여순공대), 리문환(경성공전)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물론 의학과 농학계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장기려(경성의전)와 계웅상(구주제대)이 그 책임을 맡았다.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 고등교육사업 개선에 관한 결정서”, 北朝鮮人民委員會 司法局 編纂, 앞의 자료;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內閣, “國家學位授與委員會 委員 增員 및 委員長 書記長 任命에 關한 決定書”, □ 內閣公報 □ (1948).

초기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의 창출 13

소속학부	학 력	경 력	출 신	정 당
공학부	대학-4명 전문-14명	3년 이상-7명 3년 미만-11명	상층-9명 중층-9명	가입-15명 미가입-3명
의학부	대학-2명 전문-4명	3년 이상-1명 3년 미만-5명	상층-3명 중층-3명	가입-5명 미가입-1명

출처: 평양공업대학, □리력서□ (1949); 평양의학대학, □리력서□ (1949)의 내용을 재정리.

<표 3> 평양공업대학과 평양의학대학 신입교원 임용결과(1948. 12)

소속대학	정 당	학 력	경 력	출 신
평양공업대학	가입자-18명	대학-6명 전문-12명	3년 이상-4명 3년 미만-14명	상층-5명 중층-13명
	미가입자-14명	대학-1명 전문-13명	3년 이상-11명 3년 미만-3명	상층-3명 중층-11명
평양의학대학	가입자-12명	대학-2명 전문-10명	3년 이상-4명 3년 미만-8명	상층-4명 중층-8명
	미가입자-8명	대학-2명 전문-6명	3년 이상-4명 3년 미만-4명	상층-5명 중층-3명

출처: 평양공업대학, □리력서□ (1949); 평양의학대학, □리력서□ (1949)의 내용을 재정리.

이들 대학의 창립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김일성대학에 1948년 7월까지 추가로 임용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동당 당원들이었다. 그러다가 공업대학과 의학대학으로 분리되면서 교원 임용에서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평양공업대학의 경우 1948년 8월에 선발된 신입교수들을 살펴보면 비당원이 10명 중 4명, 1948년 12월 이후에는 임용된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비율이 갈수록 커졌다(<표 3> 참조). 이들 비당원 교원은 전반적으로 로동당 가입자들에 비해 전문경력, 무엇보다 현장 활동경험이 풍부한 편이었다. 이들 중 활동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도 6명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도 학력은 이전보다 크게 떨어져 대부분이 전문학교 출신자들이었다. 반면 당원 교원들은 전문경력이 3년 미만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미경력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각종 학교 출신이거나 전문학교 중퇴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4명이나 되었다.³⁷⁾

가장 단적인 사례로 평양공업대학 교수로 임명된 정동윤과 문일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³⁸⁾ 정동윤은 평양사범학교 연습과(2년 과정)를 마치고 초등학교에서 5년 정도 교편을 잡았을 뿐 내세울만한 학력과 경력을 갖추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빈농

37) 갑종과 을종에 비해 각종 학교는 식민지 시기에 그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교육기관들이었다.

38) 이들의 이력은 “[정동윤] 리력서, 자서전”; “[문일현] 리력서, 자서전”, 평양공업대학, 앞의 자료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

출신의 로동당 열성 당원이었던 관계로 평양사범전문학교, 중앙교육간부학교 교원으로 승승장구하여 김일성대학 야간학부 강사, 드디어는 평양공업대학의 정식 교수가 되었다. 이와는 달리 문일현은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기술자로서 15년 이상 종사하여 기사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비록 비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이 부족하고 교양수준이 낮았지만 풍부한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내무국 기사로 활동하던 중 평양공업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이들은 평양공업대학의 교수진을 구성하던 서로 다른 두 유형의 교원으로서 좋은 대비를 보여준다.

평양의학대학은 교수 임용에서의 변화가 조금 늦게 나타났다. 대학 창립 직후에는 철저하게 로동당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교수인력을 선발했다. 상당수의 교수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데다가 공학보다는 예비인력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역시 사상성이 강조되다 보니 별다른 연구 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곳에서도 1948년 10월, 특히 12월부터 비당원 교원들의 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표 3> 참조). 이 때부터는 앞서의 공업대학과 비슷하게 로동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현장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는 대학교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대학에서 눈에 띄는 사실의 하나는 한 여성이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교원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북한은 체제의 우월한 일면으로 남녀평등을 내세우고 있었으므로 최고 학부에 여성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 때 교수로 선발된 황희현은 일본에 유학 가서 동경여자고등사범학교를 마친데다 형제들이 열성당원인 집안의 출신이라는 좋은 배경을 갖추고 있었다. 비록 그녀는 로동당 당원은 아니었지만 학력과 출신배경, 사상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에 대표적인 여성을 선정해서 우대하려는 사회 풍조에 힘입어 평양사범전문학교 교원, 김일성대학 연구원, 평양의학전문학교 교원을 거쳐 1948년 10월에는 최고 학부의 교수까지 오르게 되었다.³⁹⁾

이렇듯 1948년부터는 교수임용의 판단 및 기준이 크게 달라져가고 있었다. 사상성과 함께 현장성도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로동당 가입여부와 현장 전문 활동의 경력여부가 함께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었다. 이 때에 현장 실무경력을 새로이 인식하고 중시하게 된 데에는 그것이 전문성의 한 형태일 뿐 아니라 사상성과도 관련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즉 과학기술의 현장성은 사회주의적 사상의식을 담보하게 될 새로운 형태의 전문성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다. 이로써 정치지향적 과학기술자와 현장지향적 과학기술자들이 함께 우대받는 풍조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아직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았고 앞에서 보듯이 서로 다른 그룹으로 분리된 채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상성과 전문성을 통합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의 학문전통을 세우는 일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였다. 정치성향이 만족스러우면 전문경력이 떨어지고 그 반대로 현장성을 포함한 전문경력이 우수하면 정치성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사상성과 전문성을 다함께 담을 새로운 방향으로 현장성이 거론되며 움트고는 있었으나 그 기반이 아직은 확고하게 잡혀져 있지 않았다. 물론 일부 젊은층 중에서는

39) 그녀의 출신배경, 학력, 경력 등은 “[황희현] 리력서, 자서전”, 평양의학대학, 앞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과학기술 재능과 동시에 정치사상 연마에도 열의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장차 북한의 과학기술계를 이끌 새로운 과학세대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출현은 다른 한편으로 사상성이 철저히 못 한 사람들을 갈수록 위축시키고 급기야는 중도 탈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체제 선택의 기회가 존재하던 1950년 한국전쟁의 시기까지 여러 명의 과학기술자가 월남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평양공업대학의 교수 중 10명 정도가 월남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⁴⁰⁾

5. 맺음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과학과 생산, 이론과 실천의 연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현장성 혹은 현장지향적 과학기술자가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이룬다. 북한도 이런 면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들의 일반적 속성을 닮아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현장출신 과학기술자의 위상과 역할이 두드러지고 과학기술 전반이 강한 현장 지향성을 보이게 되었던 것은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보인다. 북한 과학기술에서 현장지향성이 한층 강조되어서 나타난 것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었다. 북한은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었고 사회주의에 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소련을 모델로 삼았다. 전문성과 사상성을 결합한 사회주의적 과학기술자를 창출하기 위한 시도도 그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현실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는 애초의 의도와는 다르게 현장지향적 과학기술자의 부상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즉 과학기술에서 현장성을 사회주의적 사상과 기술적 전문능력을 다함께 갖춘 사회주의적 과학기술로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후에도 한동안 과학기술에서 사상성과 전문성, 그리고 이와 결부된 현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1950년대 전쟁 직후에는 과학기술인력의 손실로 전문능력이 일시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고, 정치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할 때는 사상검열이 다시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복구사업을 진행할 때는 과학기술과 현장을 결부시키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국가적 방향설정, 한편으로는 과학기술계 내부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현장지향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과학기술계가 통합된다. 그동안 급속히 성장해온 현장출신의 과학기술자들이 사상성에서나 전문성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은 소련식 사회주의 대신 주체노선을 추구하고 아카데미한 과학기술 대신 현장에서 유용한 과학기술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면들을 수행하기에 현장출신의 과학기술자들이 적격이었던 것이다. 1960년대 초에 현장출신의 강영창과 오동육이 각각 과학원 원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그들이 북한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북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주체 과학기술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40) 월남 과학기술자는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인원은 그보다 많았을 것이다.